

■ 주요 경기 전망

이탈리아-가나전
(13일 새벽 4시)

■ 주요 경기 결과

‘빛장수비’ vs ‘검은패기’

(이탈리아)

(가나)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의 ‘검은별’ 가나와의 일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4번째 우승을 향해 진군한다.

이탈리아는 13일(한국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가나와 E조 예선리그 첫 경기에서 격돌한다. 1934년과 1938년, 1982년 등 3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이탈리아로서는 첫 단추를 잘 꿰고 통산 4번째 우승을 향한 산뜻한 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 부상자 많아 비상

가나, 평가전서 상승기류 타

이탈리아는 브라질, 독일,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함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축구 강국답게 통째로 첫 상대 가나를 압도한다.

이탈리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에 올라있는 데 반해 가나는 랭킹 48위다. 이탈리아는 또 이번 대회를 포함해 총 18차례의 월드컵 가운데 무려 16번이나 얼굴을 내밀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데 비해 가나는 이번이 첫 출전이

이다. 이탈리아는 전통적 팀 칼린 카데나치오(빛장수비)에 47년 만에 세리에A 한 시즌 30골 고지를 밟은 늦깎이 골잡이 루카 토니, 알베르토 질라르디노로 대표되는 화력을 실어 경기에 나선다. 객관적인 전력상 분명 한 수 위긴 하지만 이탈리아 역시 적지않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부상 선수가 넘쳐나 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월드컵 직전 치른 스위스, 우크라이나와의 평가전에서 각각 1-1, 0-0으로 비기며 부진했던 점도 마음에 걸린다.

반대로 가나는 본선 진출 32개국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팀답게 지금까지 부상 이탈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평가전에서 고무공 같은 탄력을 과시하며 자메이카와 한국을 각각 4-1, 3-1로 완파,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가나는 마이클 에시엔(첼시)-스티븐 아피아(유벤투스)-알리 문타리(우디세네) 등 위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3인방을 내세워 이탈리아의 빛장수비를 허물고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깜짝 놀랄 이변을 연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BEST & WORST

BEST ‘거미손’ 히즐롭

▲히즐롭(트리니다드토바고 골키퍼) = 주전 문지기 켈빈 잭이 가진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스웨덴과 첫 경기에 나섰다. 37살의 나이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히즐롭은 전반 40분께 스웨덴 공격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골문을 향해 때린 강슛을 몸을 날려 막아내는가 하면 경기 종료를 앞두고 마르쿠스 알베크와 일대일 대결에서도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는 등 스웨덴의 파상공세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193cm, 91kg의 좋은 체격을 갖춘 히즐롭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1992년 레딩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입문한 뒤 로츠머스FC 등을 거쳐 1999년부터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WORST ‘자책골’ 가마라

▲가마라(파라과이 수비수) = 1998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출전한 월드컵에 출전한 가마라는 파라과이의 중앙 수비수다. 179cm, 85kg의 당당한 체구를 갖춘 가마라는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에서 뛰기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 밀란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이같은 베테랑도 불운을 피해가지 못했다. 전반 시작 3분만에 잉글랜드 베컴의 크로스를 머리로 걷어낸 불이 자기편 골문으로 들어간 것.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것이 베컴의 골



하고 팀 중심 수비수로 재평을 해주기를 파라과이 팬들은 고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에르난 크레스포가 2명의 수비수 사이로 슈트,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AP=연합뉴스



스웨덴 전을 0대0 무승부로 마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골키퍼 사카 히즐롭(가운데)과 브렌트 산초(오른쪽), 데니스 로런스가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잉글랜드와 파라과이전에서 잉글랜드 데이비드 베컴(오른쪽)의 프리킥이 골로 연결되자 팀 동료 리오 퍼디낸드(왼쪽)가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9일 뮌헨에서 열린 독일과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독일의 포워드 미로슬라프 클로제(오른쪽)가 세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크레스포 선제골...아르헨 16강 청신호

■ 아르헨티나 코트디부아르

‘영원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가 아프리카의 북병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독일월드컵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함부르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독일월드컵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에르난 크레스포(첼시)의 선제골과 하비에르 사비올라(비야레알)의 추가골로 디디에 드로그바(첼시)가 한 골을 만회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제압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 스웨덴 등과 ‘죽음의 조’에 속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아르헨티나는 이번에도 네덜란드, 세르비아 등과 함께 2개 대회 연속 죽음의 조에 속했지만 승점 3점을 먼저 챙기며 2라운드에 한 발 먼저 다가갔다.

조	팀	득점	승점
A조	독일	4:2	코스타리카
	폴란드	0:2	에콰도르
B조	잉글랜드	1:0	파라과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0:0	스웨덴
C조	아르헨티나	2:1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듀오인 드로그바와 콜로 투레(아스날)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아프리카 대륙 재현에 나섰다. 이날 패배로 앞으로 남은 네덜란드,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경기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트리니다드 토바고 골키퍼 신들린 선방

■ 트리니다드토바고-스웨덴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월드컵에 처녀 출전한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11일(한국시간) 도르트문트 베스트팔렌슈타디움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1차전에서 전·후반 90분 내내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해 0-0으로 비겼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남은 파라과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고 11번 도전 끝에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월드컵 첫 경기에서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올렸다. 통산 11차례 본선에 진출해 4번이나 4강에 진출했던 스웨덴과 인구 110만명에 불과한 중남미의 소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됐다. 그러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후반 초반 1명이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사카 히즐롭의 신들린 듯한 선방을 앞세워 스웨덴의 파상공세를 끝까지 막아내 귀중한 포인트를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잉글랜드, 상대 수비수 자책골에 힘겨운 승

■ 잉글랜드-파라과이

‘축구 중가’ 잉글랜드가 북병 파라과이를 힘겹게 누르고 첫 승을 올렸다. 잉글랜드는 10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트슈타디움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B조 파라과이와의 1차전에서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가마라의 자책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기대에 못미친 경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를 달성한 잉글랜드는 16일 B조 최약체로 평가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

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잉글랜드의 이번 대표팀은 역대 영국축구 사상 최강팀으로 불렸지만 간판 스트라이크 웨인 루니(21.맨유)의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진 경기였다. 스벤 에란 에릭손 감독은 198cm의 장신 파터 크라우치와 ‘원더보이’ 마이클 오언을 투입으로 내세웠지만 잉글랜드의 공격력은 90분 내내 파라과이의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유효 슈팅수는 잉글랜드가 5-2로 앞섰으며 볼 점유율도 역시 잉글랜드가 53%-47%로 조금 앞선 경기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폴란드, 2002년 이어 2연속 1차전 0대2 패

■ 폴란드-에콰도르

에콰도르는 10일(한국시간) 켈렌지르헨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A조 1차전 폴란드와 경기에서 카를로스 테노리오, 아구스틴 델가도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 승점 3을 먼저 챙겼다.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은 폴란드가 장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던 폴란드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에 0-2로 패한데 이어 두 대회 연속 0-2로 1차전을 그르쳤다. 폴란드는 패배로 다음 경기인 15일 새벽 4시 개최국이자 ‘암숙’ 독일과 2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한편 이 경기에는 이번 2006 독일월드컵에 유일한 한국 심판인 김대영 씨가 선임으로 활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독일, 1986년 이후 6개대회 연속 첫 경기 승

■ 독일-코스타리카

65의 지구촌 식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가운데 10일 오전(한국시간)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축구 개막전에서 독일은 필리프 람(뮌헨)의 첫 골과 미로슬라프 클로제(브레멘)의 생일축포 2강, 토르스텐 프링스(브레멘)의 세기골

을 묶어 파울로 완초(에레디아노FC)가 2골을 터뜨리며 분전한 코스타리카에 4-2로 승리,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 스코틀랜드를 2-1 이긴 이후 월드컵에서 6개 대회 연속 첫 경기 승리행진을 이어 나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